

# 주택의 배치 및 평면의 변화를 중심으로 본 재래식 농촌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sup>1)</sup>

-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1,3리 마을 주택을 중심으로 -

김 성 우

(정회원, 연세대 건축공학과 부교수)

이 유 미

(연세대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sup>1)</sup>

우리 역사와 사회의 근대화 과정과 함께, 우리나라 주택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현격한 변화를 통한 주택 근대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정리, 해석하는 작업은 한국 주택의 역사상 매우 중요한 작업으로 그 의의가 크다.

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전통과 근대 자체의 주택문화 뿐 아니라 양 주택문화의 융합 과정을 포괄하여야 하므로 복잡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주택 근대화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각도에서의 체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주택의 배치와 평면 형식은 주택 변화에 있어서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를 나타내므로 주택의 근대화 과정 중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배

치와 평면 형식은 공간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성격이 유사하고 상관관계가 깊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는 것이 유익하리라 판단된다.

본 논문은, 주택의 근대화과정을 물리적 요소의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었던 지난번의 논문<sup>2)</sup>에 이어서 배치 및 평면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배치와 평면 형식이 재래식 주택으로부터 근대식 주택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여 변화의 과정을 밝히고 가능한 범위까지 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주택 근대화 과정의 성격과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혀내고자 한다.<sup>3)</sup>

2)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1)」, 김성우, 이유미, 장덕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996.1, pp.3-16

3) 본 논문은 주 4)의 논문과 이어지는 성격이 있으므로 같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음의 논문에서는 생활과 공간사용의 측면에서 본 근대화 과정을 다룬 계획이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하나의 독립된 논문으로서도 내용과 해석상의 완결성을

1) 본 연구는 1988~1990년도 한국 과학재단의 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내용의 범위는 주택유형별 배치계획과 평면 형식의 변화에 국한한다. 배치의 요소로는 ①안채·마당·담장·대문의 유무와 특성, ②진입 방식, ③부속채의 위치, ④부속채에 있는 실의 종류(사랑방, 셋방, 목욕탕 등)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주택 평면형식의 변화에서는 ①평면의 전체적 형식(겹집 여부, 안방-거실-건넌방의 연결 방식, 부엌-화장실-목욕탕의 연결 방식) ②각 실(마루, 건넌방, 부엌, 현관, 화장실, 목욕탕)의 특성에 대하여 다루었다. 이러한 평면 변화 요인에 의한 분석에 이어서 전체적 이해 및 변화 단계상에 따른 고찰을 위하여 주택 유형화에 따른 변화 과정을 종합 분석하였다.

조사 대상 지역으로는 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파악하기가 용이하고, 주택 유형들간의 성격이 비교적 분명하여 상대적인 비교 서술이 가능하며, 거리가 가까워서 조사가 편리한 지역으로서 경기도 용인의 삼가 1,3리 마을이 선정되었으며 더 자세한 조사 대상 지역에 관한 정보는 여기서는 생략한다.<sup>4)</sup>

대상 주택 수는 총 50채로서 조사 대상 마을의 가구 수를 거의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채취가 가능한 가구 수내에서 조사의 정밀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연구 방법은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현지에서의 실측, 관찰, 촬영 면담을 통해<sup>5)</sup> 대상 주택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을 하였다.

두번째는 주택을 건축 시기, 구조체, 평면 형태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4가지의 주택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각 주택 유형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전통형 농촌 주택(A형), 개량형 농촌 주택(B형), 새마을형 농촌 주택(C형)과 도시형 농촌 주택(D

갓도록 시도된 것이다.

표 1. 주택 유형분류에 의한 평면구성상의 특징

	유형	분류	건축 시기	구조체	평면	사례 수
재래식 농촌 주택	A형	전통형	1888-1967	목조	홀집	16
	B형	개량형	1967-1981	블럭조	홀집	7
근대식 농촌 주택	C형	새마을형	1979	벽돌조	겹집	15
	D형	도시형	1982-1988	벽돌조	겹집	12

형).<sup>(표1참조)</sup>6) 주택 유형화는 이 지역 주택 근대화 과정의 단계를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세번째, 각 주택의 배치와 평면의 특성에 따른 해당 주택 수를, 주택유형에 따라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상호 비교하여 전체적인 경향을 파악하였다. 결과에 따라 배치와 평면형식의 변화에 대해 해석적인 설명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방법상의 관계적 과정을 통하여 재래식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배치의 변화

주택에서 건축물의 배치는 거주자의 의식 및 주생활을 반영하며 주택의 외부 공간을 만들어

4)이 지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조사주택에 대한 정보는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1)」,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학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서울 근교 농촌 주택 실태 조사 보고서(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3리 아랫마을, 1리마을)」, 1988.6.(1), 1989.1.(2), 1990.1.(3) 및 주 5)의 자료 참조.

5)현장 조사는 1987년에 2회, 1988년에 4회, 1989년에 2회, 1990년10회, 1991년1회에 걸쳐 총19회에 걸쳐 약 3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이 중 본 논문과 직접 관계되는 물리적 상황의 조사는 주로 1988년에서 1989년의 조사에 많이 의존한다.

6)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지방의 재래식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에 관한 연구(1)」의 2주택 변화의 유형화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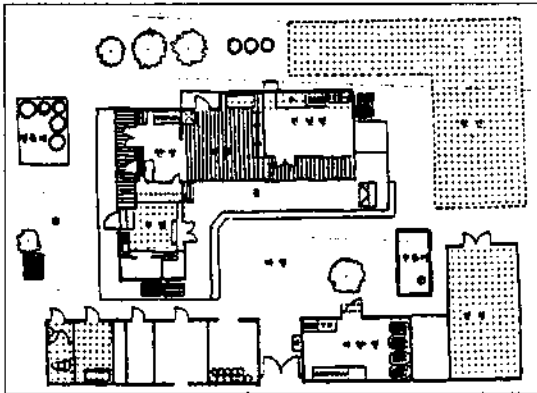


그림 1. 전통형 농촌주택 배치 실례  
(삼가 3리 장찬기씨 대)

내는 중요한 공간 계획 요소이다. 주택 배치의 변화를 앞서 언급된 주택 유형에 따른 변화 과정을 고찰한다. 조사 대상 주택들은 여러 가지의 배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면밀히 분석해 보면, 외부 공간을 형성하는 주요 건축 요소인 안채·마당·담장 및 대문의 유무와 특성, 진입 방식, 부속채의 위치와 부속채에 있는 실의 종류(사랑방, 셋방, 목욕탕 등)에 따라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1 주택 유형화에 의한 배치 형태

### (1) 전통형 농촌주택과 개량형 농촌주택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의 배치는 기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안채·마당·담장 및 대문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주택의 배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착되어 왔으며 진입 동선은 대문에서 마당을 거쳐 안채의 거실까지 일직선이나 직각을 이룬다. 마당은 뒷마당에 비해 앞마당에서 많은 활동이 일어나므로 앞마당이 뒷마당보다 발달하여 더 넓다. 부속채는 주로 안채의 옆이나 앞에 있다. 단,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에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차이는 부속채에 사랑방과 외양간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점이다. 전통형 농촌 주택은 남녀 구별의 공간 개념이 남아 있어서 남자가 사용하는 사랑방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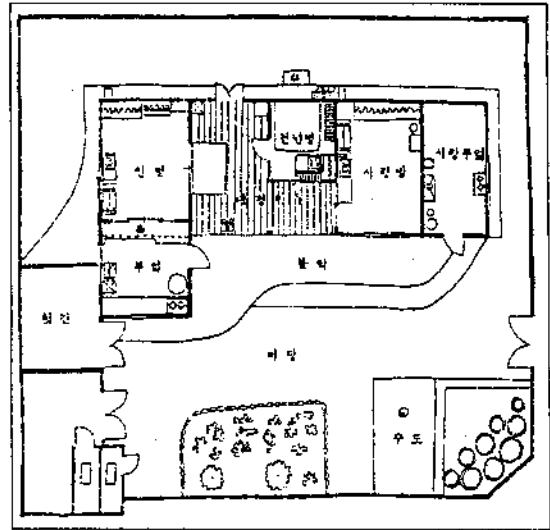


그림 2. 개량형 농촌 주택 배치 실례  
(삼가 3리 감태삼씨 대)

랑채를 형성하면서 안채와 분리되어 있는 주택이 개량형 농촌 주택에 비해 많다. 그러나 개량형 농촌 주택에는 남녀 구별의 공간 개념이 사라지면서 남자가 사용하는 공간을 안채와 구별할 필요가 없게 되 사랑채를 별도로 갖고 있는 주택이 극히 적으며 안채를 중심으로 채가 통합된다. 부속채에 외양간이 있는 경우는 전통형 농촌 주택이 개량형 농촌 주택에 비해 많다. 그것은 전통형 농촌 주택을 지을 당시에는 외양간이 필요한 농경 생활 위주였으나 개량형 농촌 주택을 지으면서 외양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농사 이외의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의 배치는 부분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재래식 농촌 주택이라는 큰 테두리 속에서 주택 배치에 대한 개념이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그림1,2참조)

### (2) 개량형 농촌주택과 새마을형 농촌주택

개량형 농촌 주택에서 새마을형 농촌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배치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개량형 주택은 대부분 앞마당이 뒷마당보다 넓으나 새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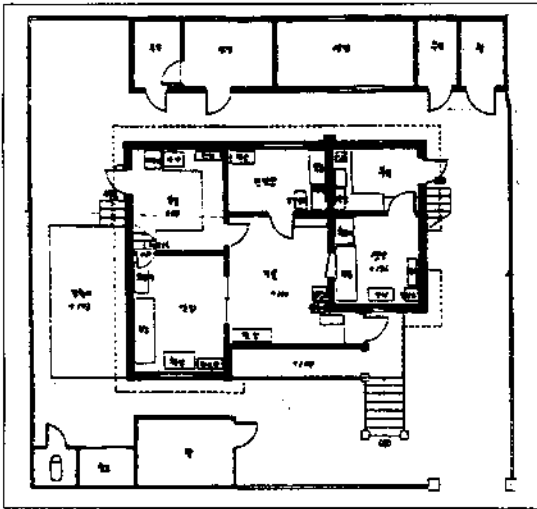


그림 3. 새마을형 농촌주택 실예  
(삼가 1리 박병준씨 댁)

올형 농촌 주택은 뒷마당이 앞마당보다 넓다. 개량형 농촌 주택은 대문이 모두 있으나 새마을형 농촌 주택의 약 80%는 대문이 없다. 부속채도 개량형 농촌 주택은 안채의 옆이나 앞에 있으나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주로 뒷마당에 있다. 개량형 농촌 주택에는 부속채에 목욕탕이 있는 경우(빈도수2/7, 28.4%)가 있으나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는 없다. 이처럼 개량형 농촌 주택 배치가 새마을형 농촌 주택의 배치와 다른 주된 이유는 새마을형 농촌 주택이 일시에 대량으로 건설되면서 일정한 패턴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대량 건설을 위해 먼저 평탄한 대지 위에 격자형 도로가 계획되었고, 각각의 주택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획일적으로 분할되었다. 또 전시효과를 위해 도로에서 주택이 깨끗이 보이도록 앞마당 대신 의도적으로 뒷마당의 사용을 권장하여 앞마당에 비해 뒷마당이 넓게 계획되고 담과 대문은 계획되지 않았다. 진입 동선은 출입구에서 마당을 거쳐 안채의 거실까지 일직선을 이룬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새마을형 농촌 주택의 거주자들은 생활 방식에 적합하도록 배치 형식을 바꾸게 된다. 넓은 뒷마당보다는 넓지는 않아도 출입구에서 들어서자마자 위치하여 사용

하기가 편리한 앞마당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또 과거 전통적인 주택에서처럼 담을 사방에 치고 출입구를 만든다. 대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안채에 별도의 현관에 있기 때문에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속채는 좁은 앞마당에 비해 주로 넓은 뒷마당에 건축하는 것이 용이하여 뒷마당에 건축된다. 개량형 농촌 주택에서는 내부에 목욕탕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목욕탕을 부속채에 설치하기도 하나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목욕탕을 안채 내부에 도입하기 시작하여 더 이상 부속채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개량형 농촌 주택의 배치는 전통형 농촌 주택의 전통적인 배치 개념과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새마을형 농촌 주택 배치는 새로운 배치 개념이 도입된다. 다소 과격한 듯이 보이는 새마을형 배치에로의 변화는 재래식 주택의 생활 습관과 마찰을 만들어 새마을형 배치의 골격 자체가 변하지는 못하여도 부분적 변용과 사용 방식이 전환되는 방식으로 재래식 배치 개념으로의 회귀 경향을 보인다. 새마을형 배치는 혁신적인 변화의 시도이었으나 거주인의 자생적 발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졌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마찰과 조정은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3) 새마을형 농촌주택과 도시형 농촌주택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 도시형 농촌 주택으로 변하면서 배치형식은 많은 차이를 보인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의 약 80%는 대문이 없으나 도시형 농촌 주택은 재래식 농촌 주택들과 마찬가지로 대문이 모두 있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뒷마당이 앞마당보다 넓으나 도시형 농촌 주택은 대부분 앞마당이 뒷마당보다 넓다. 부속채도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주로 뒷마당에 있으나 도시형 농촌 주택은 안채의 옆이나 앞, 뒤에 다양하게 배치된다. 출입구에서 마당을 거쳐 안채의 거실까지의 진입 동선은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대부분이 일직선을 이루나 도시형 농촌 주택은 일직선이나 직각 등 다양한 형태를 이룬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과 도시형 농촌 주택은 모두 재래식 농촌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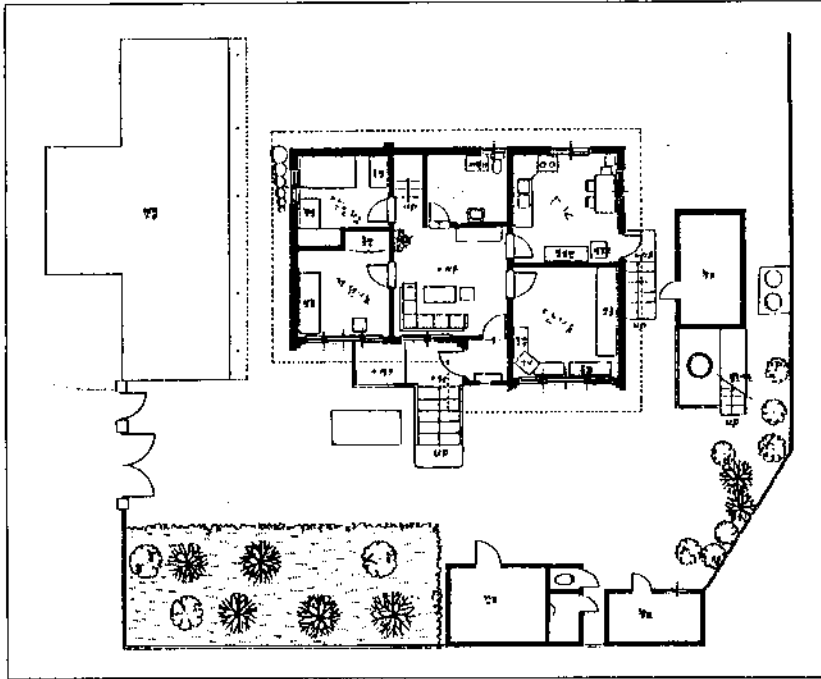


그림 4. 도시형 농촌 주택 배치 실례(삼가 1리 오세운씨 덕)

파는 달리 부속채에 배치되던 목욕탕이나 화장실이 실내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부속채에는 더 이상 배치되지 않는다.

이처럼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 도시형 농촌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주택의 배치는 상당 부분 재래식 농촌 주택의 배치 개념으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새마을형이 과도하게 현실과 주생활 습관에 맞지 않는 계획이 강요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며 동시에 안채의 건축적 내용으로서는 전통적 주택으로 돌아가지 못하지만 배치형식에서는 재래식 형식과 장점을 살리는 방식으로 돌아 가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아무튼 건물 자체는 근대식으로 바뀌었으나 배치계획은 재래식을 다시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특이하다.

### 3. 평면 형식의 변화

본 절에서는 주택 평면의 변화를 고찰하여 주

택 내부 공간의 근대화 과정을 알아보려 한다. 먼저, 주택이 근대화되면서 전체적인 평면 형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고 각 실별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한다. 그 후, 계속해서 변화 단계적 유형에 따라 평면 형식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3.1 전체적 형식

주택 평면의 전체적인 변화를 고찰하기 위하여 평면이 근대화되면서 나타나는 전체적이고 구조적인 특성들을 먼저 조사하였다. 그 내용으로서는 흘집-겹집의 문제, 안방-거실-건넌방의 관계, 부엌-화장실-목욕탕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흘집과 겹집

재래식 농촌 주택에서 근대식 농촌 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전체적인 평면 형태는 흘집에서 겹집으로 변한다. 조사 대상 주택 중 전통형 농촌 주

표 2. 주택 유형별 평면의 전체적 특성에 따른 사례수 : ( )안은 %

주택유형 평면특성	재래식 주택		근대식 주택	
	전통형 (A형)	개량형 (B형)	새마을형 (C형)	도시형 (D형)
접집여부	0/16 (0)	0/7 (0)	14/15 (93.3)	11/12 (91.7)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보는 형식	13/16 (81.2)	7/7 (100)	11/15 (73.3)	8/12 (41.7)
안방을 중심으로 본부엌의 위치	앞 15/16 (93.8)	앞 6/7 (85.7)	뒤 10/15 (66.7)	뒤 8/12 (66.7)
목욕탕이 부엌 옆에 위치	0/16 (0)	0/7 (0)	5/5 (100)	4/9 (44.4)

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은 모두 홑집이고 새마을형 농촌 주택과 도시형 농촌 주택은 각기 1집을 제외하고 모두 겹집이다. 겹집의 도입은 근대화된 평면을 지닌 새마을 농촌 주택의 영향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홑집에서 겹집으로 바뀐 것은 기능 처리의 효율성, 보온 효과, 그리고 짧은 동선과 같은 요인때문으로 판단된다. 근대식 농촌 주택이 겹집으로 지어지면서부터 재래식 농촌 주택의 개방적 성격이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근대식 농촌 주택 중 홑집인 2집은 재래식 농촌 주택의 홑집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대지 형태가 협소한 관계로 홑집의 형태로 건축되었으나 재래식 주택 유형의 홑집과는 달리 거실과 연결된 복도에서 안방과 건넌방 이외의 방은 물론 부엌으로의 직접 출입이 가능하다. 즉, 근대식 농촌 주택에서의 홑집은 재래식 농촌 주택의 홑집보다 발전된 형태로서 근대식 농촌 주택의 평면 유형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때 홑집에서 겹집으로의 변화는 가장 근본적인 평면 형식상의 변화로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겹집으로의 변화는 주택의 개념자체가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변하는 것으로서 그 영향은 주생활 및 주의식상의 변화를 포함하여 대단히 클 수 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주택 근대화는 겹집화 현상으로의 전환이라고 규정해

야 할 지도 모른다.

## (2) 안방-거실-건넌방의 관계

재래식 농촌 주택은 대부분 마루를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 보고 있고, 안방 아래로 부엌을 연결시킨 평면 형태를 띠고 있다. 반면 근대식 농촌 주택은 겹집이 되면서 평면이 쪼그러게 된다. 근대식 주택 중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대부분(70-100%) 앞켜에는 재래식 주택에서와 유사하게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배치되며 뒷켜에는 앞켜에 배치되지 않은 나머지 실들이 배치된다. 즉,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과거의 거실, 안방, 건넌방의 배치 개념을 그대로 유지하여 앞켜에 옮겨 놓는다. 그러나 도시형 농촌 주택은 약 42%만이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 보고 있다. 그 이유는, 거실, 안방, 건넌방의 조합방식이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 보는 방식으로 배치되지 않고 기타의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도시형에서는 그 비율이 다소 줄어들지만, 안방-거실-건넌방의 형식은 우리나라 주거 형식상 끈질기게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

## (3) 부엌-화장실-목욕탕의 관계

재래식 농촌 주택에서 부엌은 안방 앞에, 화장

표 3. 주택 유형별 평면의 특성

구분		재래식 주택		근대식 주택	
		전통형 (A형)	개량형 (B형)	새마을형 (C형)	도시형 (D형)
거실(마루)이 없음		2/16 (12.5)	0/7 (0)	0/15 (0)	0/12 (0)
건넌방이 없음		3/16 (18.8)	0/7 (0)	4/15 (26.7)	4/12 (33.3)
현관이 있음		0/16 (0)	1/7 (14.2)	13/15 (86.7)	12/12 (100)
실내 화장실이 있음		0/16 (0)	0/7 (0)	10/15 (66.7)	11/12 (91.7)
실내 목욕탕이 있음		0/16 (0)	0/7 (0)	5/15 (33.3)	9/12 (75.0)
부 업 의 분 류	재래식	5/16 (31.25)	4/7 (57.1)	0/15 (0)	0/12 (0)
	개량입식	6/16 (37.5)	1/7 (11.3)	11/15 (73.3)	0/12 (0)
	완전입식	5/16 (31.25)	2/7 (28.6)	4/15 (26.7)	12/12 (100)
거실에 전면 창호가 있음		6/16 (37.5)	5/7 (71.6)	15/15 (100)	12/12 (100)

실은 안채와 분리되어 부속채에, 그리고 목욕탕은 없거나 부속채에 있었다. 그러나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는 부엌, 화장실과 목욕탕이 실내에 도입되기 시작하여 도시형 농촌 주택에서는 모두가 주택 내부에 들어온다. 그리하여 주택 평면상에서 앞쪽에는 주로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이나 건넌방이 배치되고 뒷쪽에는 부엌, 화장실, 목욕탕이라는 주택의 서비스 시설들이 주로 배치된다. 특히,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는 주로 부엌은 안방 뒤에, 목욕탕은 부엌 옆에 배치되었으나 도시형 농촌주택이 되면서 좀 더 다양한 배치 형태를 띤다.

주택 관련 설비 시설의 발달로, 부엌, 화장실, 목욕탕이라는 주택에서의 서비스 시설들이 주택 내부로 들어오는 사실은 재래식에서 근대식으로의 변화로서 중요한 현상중에 하나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시설이 근대식 농촌

주택의 뒷쪽에 배치됨으로 주택이 접집화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 즉, 주택 설비의 발달이 재래식 주택과 근대식 주택을 구분하는 중요한 나뉠의 기준이 된다.

### 3.2 각 실의 특성

주택이 근대화되면서 평면상에서 크게 변화하는 실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거실(마루)

거실은 주택에 들어오면서 가장 처음 대하게 되는 곳이며, 아울러 모든 활동의 중심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마루를 거실과 같은 것으로 간주할 때, 거실은 주택 유형에 상관없이 대부분 전면 중심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거실이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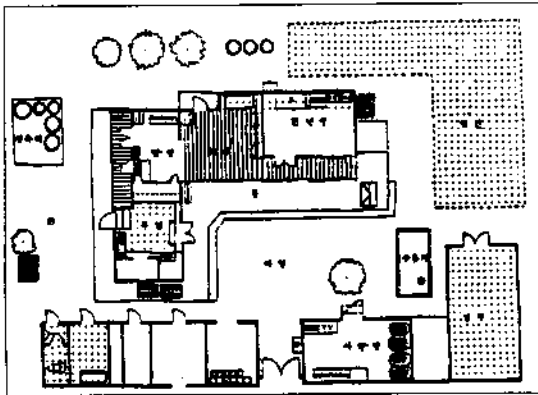


그림 5. 전통형 농촌 주택 (A형 : 삼가 3리 장찬기씨 댁)

면 변화 속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공간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다.

단, 전통형 주택의 2채만이 쪽마루가 있는데 그것은 소형주택이었기에 나타나는 특수한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쪽마루는 다른 주택 유형에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주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쪽마루 대신 거실이 등장하기 때문에 파악된다.

재래식 농촌 주택의 거실은 대부분 전면 창호가 없는 개방 형태로 지어졌다. 그러나 재래식 농촌 주택 중에서 개량형 농촌 주택은 전통형 농촌 주택에 비해 거실에 전면 창호가 있는 주택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과 도시형 농촌 주택의 경우에는 신축 당시부터 모든 집에 전면 창호가 있다.

전통형 농촌 주택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주택이 대부분 거실의 전면 창호를 통해 외부와의 차단물 전제로 한 폐쇄적인 공간구성 방식을 택하고 있음은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 새마을형 농촌 주택, 도시형 농촌 주택 사이에 분명한 공간구성 방식 및 개념상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외부와 차단된 내부 공간의 구성은 다른 무엇보다 겨울의 난방 효과와 열 손실 방지라고 하는 것이 큰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2) 건넌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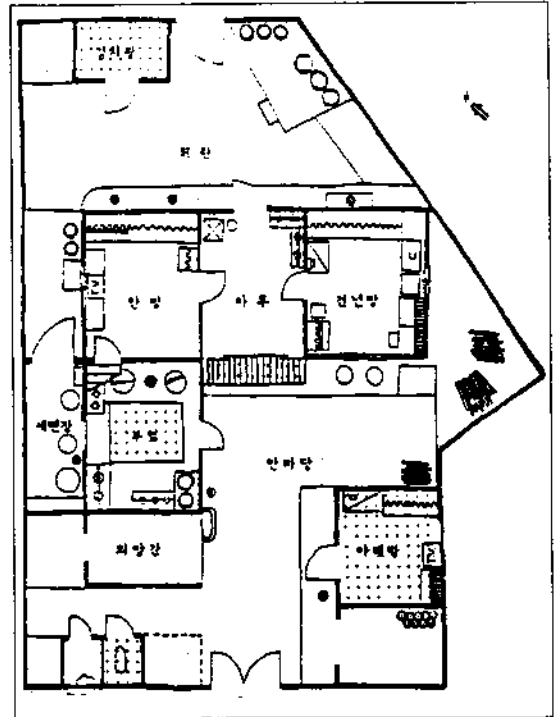


그림 6. 개량형 농촌주택 (B형:삼가 3리 김재권씨 댁)

건넌방이 없는 경우는 전통형 농촌 주택(빈도수 3/16, 18.8%)과 개량형 농촌 주택(빈도수 0/7, 0%)에 비해 새마을형 농촌 주택(빈도수 4/15, 26.7%)과 도시형 농촌 주택(빈도수 4/12, 33.3%)이 많다. 그 이유는 흙집에서 겹집으로 변화되면서 평면상의 구성 방식이 좀 더 다양해져 수요에 따라 건넌방이 없는 경우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명칭상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마주보는 방이 외의 방을 건넌방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우는 제외하였다.

(3) 현관

재래식 농촌 주택에는 1채를 제외하고 모두 현관이 없고 근대식 농촌 주택은 2개의 주택을 제외하고 모두 현관이 있다. 재래식 농촌 주택에는 없던 현관이 근대식 농촌 주택에는 도입된다.

재래식 농촌 주택에서는 예외적으로 1채의 주택에 현관이 있는데 그것은 개량형 농촌 주택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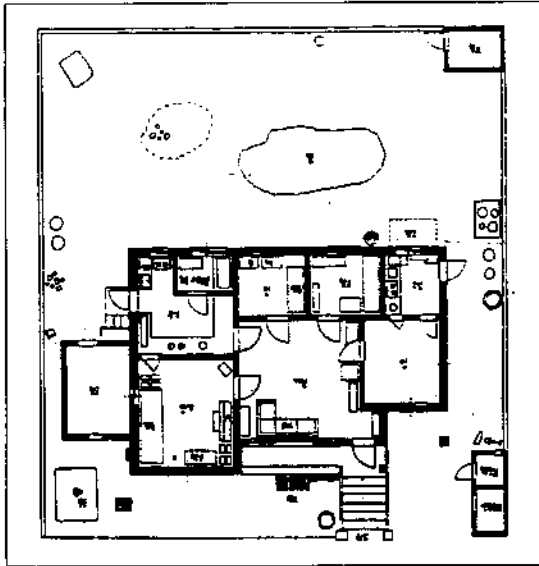


그림 7. 새마을형 농촌 주택 (C형:삼가1리 정사훈씨 덕)

경우이었다. 이 주택은 방의 면적을 증축으로 인해 L자형 주택이 D자형이 되면서 현관을 만들었다. 근대식 농촌 주택의 공간구성 요소인 현관이 재래식에 도입된 유일한 예이다. 근대식 농촌 주택 중 2개의 주택은 현관이 없는데 이는 모두 새마을형 농촌 주택으로서 완전한 근대식 농촌 주택으로 정착하지는 못한 평면 형태이다.

앞에서 언급된 예외적인 경우는 특수한 사정과 이유에 의한 것임을 감안 할 때, 재래식 농촌 주택에 없던 현관이 근대식 농촌 주택에 도입되는 과정은 주택의 근대화과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변화내용 중의 하나로서 간주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관의 도입으로 주택 내부공간의 성격이 패쇄적으로 변화했다는 사실은, 현관이 재래식 농촌 주택과 근대식 농촌주택의 평면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 (4) 부엌

부엌의 유형은 부엌 개량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부뚜막이 있고 부엌 바닥이 거실 바닥과 단차가 있는 경우는 재래식 부엌으로, 간이 입식 가구가 있으며 실내화된 부엌을 개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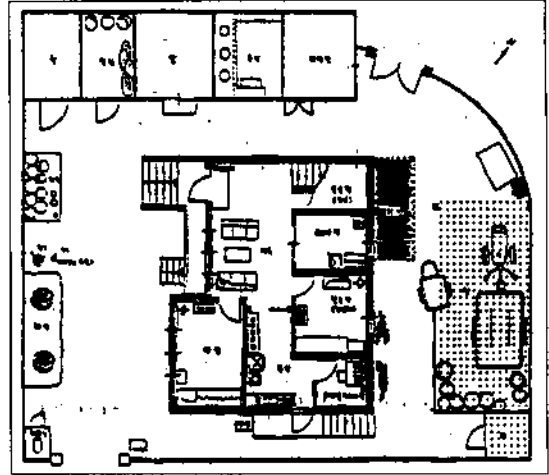


그림 8. 도시형 농촌 주택 (D형:삼가3리 김인환씨 덕)의 실례

입식 부엌으로, 개량 입식 부엌에서 간이 입식 가구 대신 완전 입식 작업대가 있는 부엌을 완전 입식 부엌으로 구분한다.) 재래식 농촌 주택의 부엌은 재래식 부엌에서부터 개량 입식, 완전 입식 부엌이 모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아직 개량 과정 중임을 알 수 있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주로 개량 입식이며, 도시형 농촌 주택은 대부분 완전 입식이다. 부엌의 위치는 재래식 농촌 주택에서는 대부분 안방의 전면부에 위치하지만 근대식 농촌 주택에서는 겹집이 되면서 부엌의 위치는 변한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는 안방의 뒤에 위치하나 도시형 농촌 주택에서는 주택 평면상 후면부에 위치하지만 좀 더 다양한 배치 형태를 띤다.

이러한 부엌의 개량 과정은 주택의 유형에 따라 분명한 개량 과정의 연속적 변화 양상을 보여 주며, 주택 근대화 과정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부엌은 주부의 생활 중 주요노동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각 유형의 단계마다 개량되어가는 정도

7) 장덕찬, 「서울 근교 농촌주택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용인군 삼가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12), pp22-28

가 완연하게 드러난다. 그러므로 실제적인 개량의 필요와 수요가 직접반영된 요소로서 의미가 있다.

#### (5) 화장실

재래식 농촌 주택에는 모두 실외에 있던 화장실이, 새마을 농촌 주택에서는 실내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대부분의 도시형 농촌 주택에는 실내에 설치된다. 주택이 근대화됨에 따라 주택 설비가 발달하고, 퇴비의 필요성도 감소하면서 화장실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이 지어질때만해도 실내 화장실이 설비와 사용 습관이라는 이유 때문에 완전히 활성화되지 못하였으나 도시형에 와서는 화장실이 내부공간의 한 요소로 정착 된다.

화장실은 주택유형에 따라 실외에서 실내로 도입되는 과정이 분명하여 재래식 농촌 주택과 근대식 농촌주택을 가르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 (6) 목욕탕

재래식 농촌 주택에는 실내에 없거나 외부에 있던 목욕탕이,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는 실내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도시형 농촌 주택에서는 대부분의 주택에 도입된다. 이것은 주택의 구조와 수도, 난방 등의 설비시설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쉽게 이해가 된다. 목욕탕 위치는 새마을 농촌 주택에서는 모두 부엌 옆에 있으나 도시형 농촌 주택에서는 부엌 옆에 있는 경우는 44.4%로 새마을 농촌 주택에 비해 적다. 그 이유는 주택 평면이 도시화되면서 수도 설비가 용이해져 수도를 필요로 하는 부엌과 목욕탕이 꼭 인접하여 배치될 필요성이 없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실내 화장실이 도입에 비해 실내 목욕탕의 도입은 다소 부진하다. 그 이유는 주택 내부에 목욕탕은 보온성, 편리성 면에서 우세한 대중 목욕탕으로 대체가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유추된다.

### 4. 종합 토의 및 결론

#### (1) 전통형 농촌주택과 개량형 농촌주택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은 재료에 있어서 목구조와 블록조로 서로 다르나 배치와 평면은 매우 유사하다. 개량형 농촌 주택은 블록조일지라도 기존의 전통형 농촌 주택의 개념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배치의 경우, 안채·마당·대문·담장이라는 기본적인 구성 요소, 넓은 앞마당, 부속채의 위치, 진입동선 등과 같은 전통형 농촌 주택의 배치 요소들이 개량형 농촌 주택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 평면형식에 있어서도 전통형 농촌 주택의 평면은 개량형 농촌 주택과 유사하여,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보는 공간구성, 홀집, 안방의 전면에 위치하는 부엌, 그 이외에 현관·실내 화장실·실내 목욕탕이 없다는 사실이 두 가지 주택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전통형 농촌 주택과 개량형 농촌 주택 유형은 전통 주택의 배치 및 평면 개념을 유지하되 재료를 바꾸었던 것으로서 이것이 근대화과정의 첫 단계가 된다.

#### (2) 개량형 농촌주택과 새마을형 농촌주택

개량형 농촌 주택과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같은 조적조이면서도 배치와 평면형식은 크게 다르다. 주택의 배치와 평면형식에 있어서, 개량형 농촌 주택으로부터 새마을형 농촌 주택으로의 변화는 근대화 과정상 가장 현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배치의 경우, 개량형 농촌 주택의 특징으로는 다양한 진입동선, 넓은 앞마당, 안채의 옆이나 앞에 위치하는 부속채, 안채·마당·대문·담장이라는 요소의 정착을 들 수 있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 배치의 특징은 일직선을 그리는 진입동선, 좁은 안마당과 넓은 뒷마당, 안채의 뒤에 위치하는 부속채, 대문이라는 요소의 생략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것을 개량형 농촌 주택의 배치와는 크게 다름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새마을형 농촌주택의 배치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당부분 개량형 농촌 주택과 유사하게 변용 되는데

그 이유는 거주자의 생활에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평면의 경우, 개량형 농촌 주택 평면형식의 특징으로는 홀집, 거실을 중심으로 안방과 건넌방이 마주보는 배치, 안방의 전면부에 배치되는 부엌, 현관·실내 화장실·실내 목욕탕이 없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 평면의 특징은 우선 겹집이면서 안방·거실·건넌방의 다양한 연결 방식, 안방의 뒤면에 배치되는 부엌의 위치, 현관·실내 화장실·실내 목욕탕의 도입, 거실에 설치된 전면 창호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러한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 도입된 평면형식의 특성은 도시형 농촌 주택에서 좀더 확고하게 정착하게 된다.

배치와 평면에 있어서 개량형 농촌 주택은 전통적 주택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새마을형 농촌 주택은 개량형 농촌 주택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 변화는 주택의 재료, 평면형식, 설비 등의 모든 기본 요소가 바뀐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택의 개념 자체가 바뀌었다고 보아야 한다. 새마을형 농촌 주택으로의 과격한 변화는 반 강제적으로 요구되어 가능하였던 형식이었지만 동시에 그러한 방식은 주택의 근대화를 앞당기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었다. 즉, 새마을형 농촌 주택이 있었기에 그 다음에 건축되어지는 도시형 농촌주택으로의 변화가 용이하였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새마을형도 개량형과 도시형의 사이에 위치하면서 그 두가지를 이어주는 과도기적인 변화이었던 것도 확인된다. 화장실, 현관, 부엌 등 거의 모든 요소에서 그러한 과도기적인 현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때 새마을형이 왜래적 유입과 반강제적 시행이라는 측면은 있지만, 동시에 불가피했던 근대화 과정상의 한 단계이었음도 분명한 사실이다.

### (3) 새마을형 농촌주택과 도시형 농촌주택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 도시형 농촌 주택으로의 변화는 배치형식은 상이하나 평면은 비슷한 개념의 틀을 가지고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치의 경우, 새마을형 농촌 주택의 특징은 일직선을 그리는 진입동선, 넓은 뒷마당, 안채의 뒤에 위치하는 부속채, 대문이라는 요소의 생략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형 농촌 주택의 배치는 재래식 농촌 주택과 유사하게 다양한 진입동선, 앞마당의 발달, 안채의 옆이나 앞에 위치하는 부속채, 안채·마당·대문·담장이라는 요소의 정착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어 새마을형 농촌 주택과는 판이하다.

평면의 경우, 새마을형 농촌 주택과 도시형 농촌 주택은 겹집, 거실의 전면 창호 설치, 현관의 도입, 사랑방이라고 불리는 방의 도태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단, 도시형 농촌 주택은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 비해 안방·거실·건넌방의 연결 방식이 좀더 다양해지고, 실내에 화장실과 목욕탕 뿐 아니라 다용도실도 도입되는 등 더욱 도시주택에 가깝게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알아보았듯이 배치의 경우는 새마을형 농촌주택에서 도시형 농촌주택으로 변화하면서 재래식 농촌주택의 배치형태로 회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새마을형에서의 배치계획은 현실성 없는 부당한 계획이 강요되었던 것이라는 사실이 어느정도 입증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배치에서는 근대화 과정의 흐름에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평면은 새마을형 농촌 주택에서 기존의 다른 도시형 주택이 갖는 장점들이 거의 갖추어지는 방식으로 변하면서 정착되되 평면의 형식이 좀더 다양해진다.

### (4) 결론

이제까지 언급한 주택 유형에 따른 배치 및 평면의 변화는, 주택 유형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단계적 변화는 바로 우리나라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의 변화로서 그 변화의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배치계획은 지속성이 강하고 평면은 변화 성향이 강하다. 이것은 배치계획이 평면 계획보다 재래적 인습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근거이기도 하지만, 한편 평면과 주택

개념의 근대적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상대적으로 배치는 재래식 인습의 유지가 쉽기 때문에 변화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떻게보면 농촌 주택의 근대화 과정은 재래식 배치계획에 서양 근대식 주택 건물 개념이 합쳐진 것과 같은 결과이기도 하다. 서양식 근대주택은 본래 담장과 대문을 필요로 하는 형식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담장과 대문이 있는 재래식 배치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 한국형의 창출이라고 봐야할지 어중간한 접합이라고 봐야할지 모른다는 의문이 남는다.

평면 변화의 측면에서 볼 때 전통형과 개량형은 그 기본 개념이 같고 새마을형과 도시형은 재래식과 완전히 다르며 그 변화의 선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것은 새마을형의 등장이 근대적 변화의 획기적 계기가 됨을 보여준다. 전술한대로 새마을형도 개량형과 도시형의 과도기적 단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재래식과 근대식의 구분은 새마을형에서 확연히 드러남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한

변화의 주된 차이는 역시 설비가 필요한 부엌, 화장식, 목욕탕 등의 실내 도입으로 인한 점집화이었다. 안방-거실-건넌방의 평면 체계가 근대식에서도 끈질기게 유지되는 것을 볼 때 근대식 평면도 재래식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단지 설비 등의 발달에 의한 생활 편리시설에 대한 요구가 점집을 만드는 과정으로서 평면 변화가 불가피했었던 것이다. 그러한 변화가 도시형으로 오면서는 상황에 맞게 좀더 다양화한다.

이러한 평면의 변화는 서양 주택의 개념에 근접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서만 가능한 한국형 농촌근대주택의 형식으로도 봐야하는 것도 사실이다. 같은 형식이 서양이나 다른 어느나라에서도 보편적으로 찾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치와 평면에서 찾아지는 농촌주택의 근대화는 서양식 개념은 차용되었으되 결과적으로는 한국식으로 근대화된 주택의 창출 과정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 참고문헌

- 장덕찬, 「서울 근교 농촌주택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경기도 용인군 삼가리 마을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12.)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서울근교 농촌 주택 실태 조사 보고서(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3리)」, 1988.6.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서울근교 농촌 주택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3리 아랫마을)」, 1989.1.
- 연세대학교 가정대학 주생활과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서울근교 농촌 주택 실태 조사 보고서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삼가 1리 마을)」, 1990.1.
- 윤정숙의 2인, "서울근교 농촌주택의 주거공간 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 학회 논문집」, 1989.6.
- 住田昌二, "住様式の近代化에 關한 日韓 比較", 「대한 건축학회 춘계 학술 발표 대회 특별 강연회 강연집」, 1989.4.29.

#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the Site Plan and Plan of Conventional Rural Houses

- Based on the Houses in SamGa Village, YongIn County in Kyung-gi Province -

Kim, Sung Woo  
(Yonsei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Lee, You Mee  
(Proceeding Doctor Degree of Yonsei University)

## ABSTRACT

The study is about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conventional rural houses in Kyung-gi province. It aims to identify the pattern of change,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site plan and plan. The site of study is Samga Village, in YongIn County, near Seoul. The study discusses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during the three decades from 1960 to 1980. The basic information was obtained through field research and site analysis, and the study relies predominately on observational and statistical analysis.

Four developmental stages can be clearly identified which are ; ① Traditional type, ② Modified-traditional type , ③ Saemaul type, and ④ The type of urban houses. The analysis was done through identification of changing site plan and plan.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changes of these elements show a certain pattern of sequential steps which also can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four developmental stages mentioned above. The pattern of site design was constantly maintained while plan and building system became very different. However,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n rural houses was the process of producing a certain type of architecture that is not universal but uniquely Korean.